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최종 합격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장○○ 수강생		수강방식	인강
응시지역	경기		병행 여부	학부 병행
공부경력	초수		등수	경기 177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1/80 논술: 13.67/20 컷플 +1.67	2차	수업실연: 57.98/60 면접: 36.27/40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박수민 선생님의 연팩 강의와 2차 강의를(인강) 수강하여 최종 합격한 경기 합격생입니다.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꿈을 키워왔던 제가, 이제는 합격생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수석이나 초고득점은 아니지만, '학부 병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해나갔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얻은 깨달음과 효율적인 공부법을 함께 담겠습니다. 일부 참고하여 공부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공부 방법에 앞서, 저의 성격과 공부 스타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성향 중 일부는 수험 생활에 꽤 방해가 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갔기에, 혹시 저와 비슷한 성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① 스마트폰 중독
- ② 아침잠이 많음 + 수면 장애
- ③ 장기적 계획 세우기 어려워 함
- ④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 시작을 못함
- ⑤ 집중력 짧음
- ⑥ 자기 확신 부족

<공부 스타일>

강의 듣기 + 필기 + 구조화 좋아함 / 완벽주의 성향 0 / 두음 암기, 노래 암기 선호

이 밖에도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았지만, 크게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수기에서 자세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제 수기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여유있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시험 준비 방법

<p>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월에는 강의는 결제해둔 상태였고, 보육실습을 하며 개론(사상)까지는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 평소 앉아서 강의 듣고, 필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름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 공부 시간 : 5H~7H <p>1. 교재 스프링 분철 개론: (성격/사상/발달), (놀이/교사론/부모론) 2권으로 분철 각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운영) 6권으로 분철 초기에 분철을 해놔야 눈에 익히기 쉽고, 계획표도 짜기 수월합니다.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2. 고시문 유튜브 씽송 스튜디오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이라고 즐겁게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p> <p>3. 진도 개론은 실습 전에 끝내자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강의를 소화했습니다. <u>3일간 주차 강의 듣기 / 1일 동안 복습, 인출 및 확인학습 문제 풀이 / 1일 동안 기출 풀이 및 분석 -----> 이렇게 5일을 잡고 돌렸고, 3월의 마지막 주에는 본 강의의 진도(신체운동-건강)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u></p> <p>4. 하이실, 법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을 매일 들고 다니기에 힘들 것 같아 '카페 24'라는 곳에서 원문을 구매했습니다. 초수라 포인트 찾기가 어려웠지만, 편의성이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누리과정 관련 문제집을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p>
<p>4~6월 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습과 학부 일, 번아웃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 만약 저와 같이 실습으로 공부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그 시기 동안은 강의 홀딩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6월 중순~

- ◆ 강의 밀리지 않기, 이론과 함께 기출문제! 꼭 안고가기
- ◆ 개론 복습 놓치지 않기
- ◆ 공부 시간 : 5H~7H

1. 각론 (사회관계까지 완료)

한 주에 하나의 각론 분량을 끝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강의 듣고, 복습/인출/확인학습 문제 풀이를 반복했습니다.

또, 하나의 분량(ex: 의사소통)진도가 끝나면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는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니, 풀고 나서 왜 틀렸는 지, 정답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론 복습

각론의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씩 분량을 나눠 누적 복습을 했습니다. 손으로 쓰며 복습을 시작했는데, 교재를 보며 나만의 구조를 세웠습니다. 쓰고 또 쓰다보면 어느 순간 이름들과 명칭이 눈에 익기 시작합니다.

(안 보고 X,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했어요)

ex) 놀이의 특징, 특성

- 스폰셀러 (3)
- 레비 (3)
- 존슨, 크리스티, 야키 (5)

이렇게 학자 이름을 크게 잡고 그 아래 정리해보며 머릿속과 교재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작업했습니다. 동시에 강사님께서 작성해주신 요약본과 비교해보며 잘 정리했는 지 이중체크하며 또 한 번 머릿속에 반복하여 넣었습니다.

3. 논술 공부

화, 목, 토를 논술 하는 날로 지정해두었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할 듯하여 컴퓨터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틀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수기로 직접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8월

◆ 공부 시간 : 6H~8H (공부 시간 늘리기!)

1. 각론

실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가 밀려있었습니다. 7월까지 운영편 강의 및 확인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박수민 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는 무조건 다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강의 보다가 멈추고 중간에 필기하며 시간을 많이 허비했지만, 진도가 밀려있는 상황이거나 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조정하여 조금빠르게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까지 2회독을 목표로 문제 풀이와 기출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2. 안전, 법

이때부터 슬슬 안전과 법을 틈틈이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강의 수강과 복습하는데 여념이 없었는데,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의 경우 동요 음을 따라 노래를 만들어 녹음해두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매일같이 듣고 따라 중얼거리며 자연스럽게 외웠습니다. 이 방법 정말 추천드립니다! 안전은 틈틈이 자주 봐야하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요약본에 교재의 내용을 옮겨 부분 단권화하였습니다.

3. 해이실

고시문은 매일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인출했고, 필름으로 가려놓고 구술인출하며 외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노래 음에만 100% 의존하기보다는 '앞 글자 따기(칭킹)'를 통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래로만 외우면 막상 쓸 때 조사가 헛갈릴 수 있거든요. 또 2026년에도 고시문에 맞추어 답을 도출해내는 문제가 있었기에 절대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안 예: 김 교사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에 근거하여 ~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문제풀이반

문제풀이반의 문항들은 난이도가 높고 심화된 내용이 많아 기출보다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점수'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점수 자체보다는 채점 후 원인 분석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냥 제 작은 점수와 비 내리는 시험지를 보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진짜 시험에 나오면 대박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여기서 정리한 오답 분석은 이후 모의고사 시즌에서 실수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므로, 반드시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해당 주차 문풀 시험 전날에는, 그 외에 가장 소홀했던 과목을 일부러 골라 훑어보았습니다. 이는 오직 나의 장기기억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단기기억에 의존해 운 좋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객관적인 실력을 직면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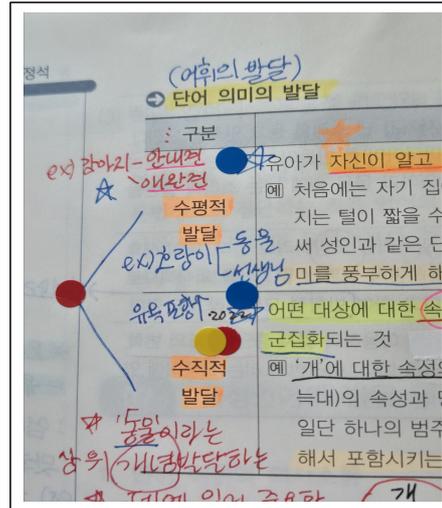
9~10월

◆ 공부 시간 : 9H~11H (공부 시간 더더더 늘리기!)

1. 기출 분석

- 기출됨: ● 빨간색 스티커
- 중복 기출: ● 초록색 / ● 노란색 스티커
- 기출 가능성 있음: ● 파란색 스티커

양식을 정해놓고 교재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재를 보며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할지 알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출 분석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9월부터 이 시험에 대해 조금씩 감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기출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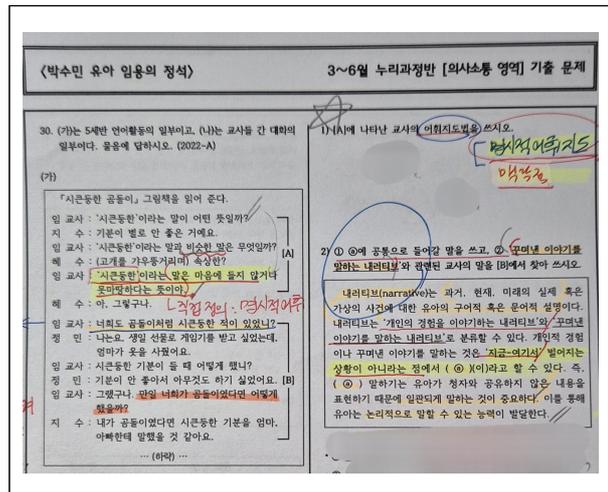


<스티커 공부법 = 기출 분석>

기출 분석의 핵심은 '확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출(의사소통 영역)에서 교사의 '명시적 어휘 지도'가 정답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개념이 나왔네, 스티커 붙여야지"에서 멈추지 않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 명시적 어휘 지도의 정확한 정의와 장점은 무엇인가?
- 그렇다면 그 대척점에 있는 '맥락적 어휘 지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맥락적 어휘 지도의 장점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의 기출 키워드를 두고 반대 개념까지 파고들며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이번 2026년도 임용 시험에 '맥락적 어휘 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정답을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지에 대한 방향기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분석의 중요성>

저는 직접 찾아가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려 모든 과목의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이 수기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출 하나를 보더라도 관련 개념으로 가지를 뺄어나가는 공부법을 꼭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7-8월부터 빠르게 기출 분석을 시작하여 후반부에 암기할 시간을 미리 벌여두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 구술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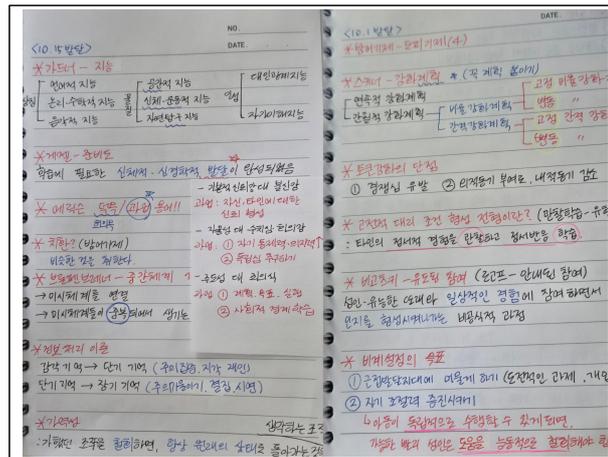
카페에서 구술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 항상 공부 시작 시간이 들쭉날쭉했기에, 오전 6시에 기상하여 15분 동안 문제를 내고 답하는 것을 약 6-7주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스터디 선생님과 매우 마음이 잘 맞아 서로 정서적 지지도 보내며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전영역	-
신	의	사	예	자	운		

9~10월

처음에는 2주를 잡아 개론 주 / 각론 주 로 나뉘고, 3주차부터는 위와 같이 개론과 각론을 병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바로 구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날 강제성이 있었기에 저는 오히려 그 강제성 있는 스케줄에 맞춰 복습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습하기에 최적화 된 스케줄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구술에서 답을 못한 것은 녹음 해놓고 되돌려가며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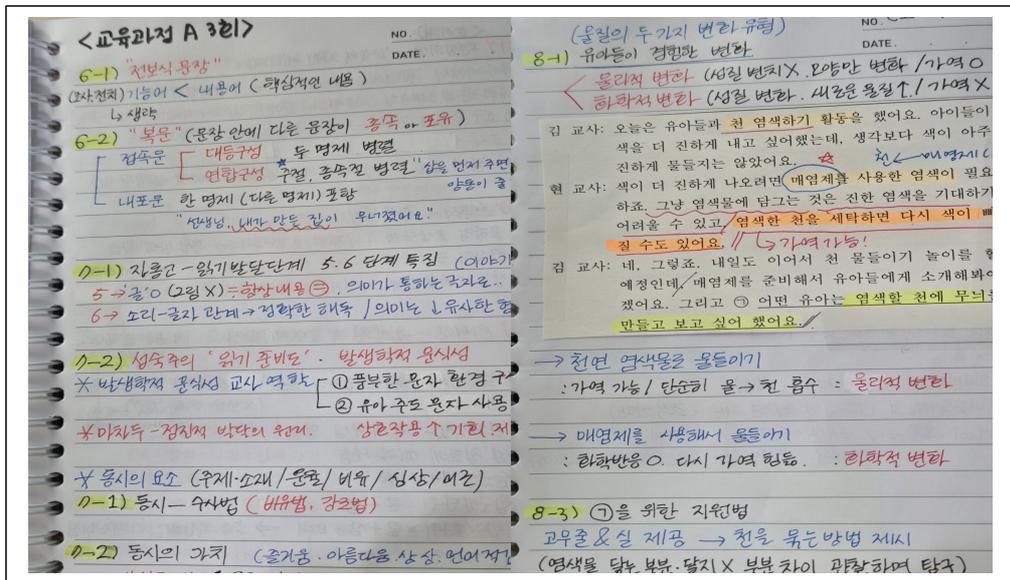


<오답노트 예시>

3. 모의고사

점수는 정말 ... 그래도 늘고 있다는 느낌만 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1회 점수가 43점이었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72점이었습니다. (논술 포함)

모의고사 시즌부터는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뭔가 짹짹하게 맞춘 듯한 기분이 드는 문제들도 다 필기하여 정리했고 이동 시, 식사 시에 읽었습니다. 지문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오려 붙이거나, 문제풀이반의 문제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9~10월

<모의고사 오답 분석 / 암기 노트>

★ 참고: 모의고사 기간에는 최대한 온종일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부 스케줄> (오전 3시간 / 오후 5시간 / 저녁 2시간 확보를 목표로 삼음)

- 6:00-6:30 오전 전화 구술 스터디
- 6:30-7:30 구술 틀린 것 오답노트/ 해이실
- 7:30-8:00 씻기 및 준비
- 8:00-8:30 이동 및 건강, 안전 보기
- 8:30-12:00 개론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각론
- 18:00-19:00 저녁식사
- 19:00-22:00 논술/운영, 각론 보충
- 23:30~ 취침

<p>9~10월</p>	<p>4. 학업 병행</p> <p>7~8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1학기 까지 학점을 최대한 이수해 두었기 때문에, 2학기에는 9학점만 수강하며 임용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총 세 과목을 수강했는데, 전공 과목 하나는 발달·운영·범위 과목과 내용이 많이 겹쳐 별도의 중간·기말고사 준비 없이도 무난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절대평가가 가능한 교직 과목을 선택하고, 교양 과목은 이러닝 강의를 위주로 수강하여 학업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p> <p>학교에서 제공하는 임용 준비실에서 동기와 함께 공부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같은 시간에 하교하는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 이동 동선이 단순해지고 독서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 논문</p> <p>졸업 요건 중 논문 제출이 있어 4-1학기에 초기 논문을 작성했던 동기들과 함께 논문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동기들이 임용 준비 일정에 대해 많이 이해해 준 덕분에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논문 작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논문 검토, 교수 상담 등 추가적인 업무를 제가 맡으며 조율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팀 분위기 덕분에 임용 공부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논문도 무사히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p>
<p>마지막 2주!! 11월</p>	<p>◆ 공부 시간 : 11H~12H (공부 시간 더더더 늘리기!)</p> <p>◆ 뽀개기</p> <p>10월 25일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끝내고, 27일부터 5일 1회독을 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27일~10월 31일 / 5일 1회독 (개 1 + 각 1) - 11월 1일~ 11월 4일 / 4일 2회독 (개 2 + 각 1) - 11월 5일~11월 6일 / 2일 3회독 (개3 + 각 3) - 11월 7일 1일 4회독 (전범위) <p>엄청나게 벅찼지만, 시간과 범위를 정해놓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2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 마지막 전날에 전범위를 보기 위해 5일 1회독을 하는 날부터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정리본에 포스트잇을 옮기며 단권화했습니다. 이것도 1주 전쯤 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p>

논술
감점
요인

저는 평소 논술 시험은 17~19점을 유지했었고, 강의도 완강, 과제도 꾸준히 소화해냈습니다. 그러나 시험 당일날에 논술이 망했음을 직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 원인 : 1. 초안 실수 2. 기초 지식 부족 3. 멘탈 붕괴

1. 초안 실수

초안에는 논제, 논거를 작성하고 서론/결론을 마지막에 흘리듯 작성해왔는데, 논제/논거를 잘못 작성하였고, 이를 수정하는 데 시간을 매우 많이 써버렸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니 긴장이 되어 문제가 읽히지 않아 뭐라고 쓰긴 쓰는데 본인도 뭘 쓰는 지 모르겠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3번 문제는 거의 훑듯이 보고 대강 키워드만 나열했습니다. 당연히 검토도 하지 못했습니다.

2. 기초 지식 부족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박자-국악과 관련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해야 할 노력을 작성하는 문제에서, 해당 박자가 자진모리장단인지 세마치 장단인지 헷갈렸습니다. 입으로 구음을 붙이며 되뇌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았고, 결국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멘탈 붕괴

2번까지 쓰고 나서 3번 문제를 보는데 정말 떠오르는 답이 없었고 열린 답안이라고 생각하여 소신껏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 내에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 또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글 전체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보니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강사님이 1차 논술 시험 풀이해주셨을 때 답안들이 모두 일치했었는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면 논술은 정말 단단한 문장력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차 시험은 반드시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검토를 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논술과 교육과정 둘 다 항상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됐었는데, 그 실수가 현장에서 크게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2026 논술은 전체적으로 고득점하셨던 선생님들도 생각 외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점 경향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여러 복기자료를 보며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문제 및 답안 복기

<면접 복기>

1. 미래교육 위한 교사 역량, 역할 +이유 / 유아에게 어떤 영향 2가지

1) 변화 대응 역량 / 환경 구성자로서의 역할

● 이유 -> 미래사회 기술과 교육은 공존이 필수적,

● 어떤 영향? 디지털 영역 만듦으로서,

[1] 디지털 활용 역량 증진 (메타버스, VR,AR)

[2] 디지털 시민성 증진 (인터넷 환경에서의 예절, 조절, 바른 사용)

2) 바른 인성적 역량 / 모델로서의 역할

● 이유-> 교사=유아 거울

● 어떤 영향?

[1] 인성 덕목 내면화 (칭찬릴레이)-> 존중과 같은 덕목 일상에서 실천

[2]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 관계에 능동적 -> 파라슈트로 공 날리기

2. 자료: 4세 5세 고시 문제 기사, 2026 신년사(학생이 중심, 모두를 위한...)

문제점+이유 / 유치원 교육과정 차원에서 해결방안 3개 (가장 감점이 컸을 거라고 생각)

● 문제점: 전인교육 위배 + 학습 무기력 (학습격차라는 키워드를 말 못함.)

● 해결방안

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2) 교사 공동체 형성

3) 학부모 지속적인 소통

-> 1번은 나름 유아 성장에 맞는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2,3번은 추상적으로 답함. (놀이의 배움의 순간을 패들릿으로 공유한다 등, 4,5세 고시랑 관계없이 말한 듯 합니다.)

3.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 각 교사 123에 대한 해결방안

● 필요성 -> 생각,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해야하기 때문

: 미래 사회 살가야는 유아들 자연 공존, 유아들이 삶의 터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 환경 보호 그치는게 아니라 인간중심주의 탈피, 생각 행동 총체적 변화해야함.

교사 1: 동물 기르기 활동 유아 선호 높고 관심 가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물이 행복할 지 고민

-> 유아들이 동물들이 행복할 지 함께 이야기 나누기

(대안으로 유기견 보호 센터 방문 등 제시)

교사 2: 점토 만들기 좋아하는 유아들, 그러나 조금 만지고 버려지는 게 많음.

-> 재활용 바구니 비치

(더 쓸수 있는것 쓸수 없는것 스스로 분류해서 모아보며 불필요한 쓰레기 감축

교사 3: 행사를 할때에는 일회용품 많아져서 고민

-> 행사 편의상 어쩔 수 없지만,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사용, 또는 식기구,파티용품은 대
여하여 사용

즉 1) 협력 경험, 이를 유치원 내에서 어떻게 학급 내 실천 할 건지 2가지

- 앙상블 동아리
- > 처음에는 각 개성이 넘치게 악기연주하다가, 함께하는 아름다움 느끼며 협력가치 경험
- 실현 방안
- (1) 교사 공동체 형성
- (2) 학부모와의 꾸준한 소통
- > 구상형과 매우 유사하게 답변

즉 2) 등원할 때 울음을 터트림/ 친구관계 어려움 겪는 유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지원 방안 2가지

- 1) 문제점 :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움 기회 놓칠 수 있음
-> 놀이를 통해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 울음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
지원 방안: 유아와의 소통을 통해 원인 파악,
예를 들어 적응이 어려운 유아일 경우 체계적 둔감법 사용.. 10분 교실에 있고 점차 시간 늘려감. 혹은 부모가 관찰실에서 보게하겠음.. (황설수설 말했어요)
- 2) 문제점: 유아 친구관계 문제
-> 유아들과 관계는 협력, 소통위해 중요하다..?(기억이 안남.)
지원 방안: 바깥놀이 활용한 협력활동 제시
유아는 몸을 부딪히며 놀이하며 친구관계 형성 이에 바깥놀이, 신체활동 기회 제공해 협력적 경험 기회 제공하겠음

<수업실연>

수업 설계 역량	<문제 > 6개 문항 중 하나 선택하고 이유,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지 말하시오. (1문제, 5분 이내 말하기) 「협력, 창의성, 감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선택 ● 이유 : 혼자 걷는 열걸음보다, 같이 걷는 한 걸음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본 활동에서 유아들은 겨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눔. 확산적 사고와 놀이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음. ● 반영 1) 본 활동을 모둠활동으로 진행 (배려, 존중, 사랑) 2) 겨울 특징 발문하기 -> 창의적인 생각 나누기 지원 3) 동시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 지원 (말의 아름다움 느낌) 4) 서로의 생각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 파생 지원 ex: 색 발문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5) 또래와의 협력 과정 (글 못쓰는 유아 - 잘 쓰는 유아)

<p>수업 실연 조건</p>	<p>1. 도입-전개-마무리(부분:확장활동까지) 2. 앞에 유아 있다고 상상하고 시연 3. 겨울에 대해 탐색하는 발문 4. 글씨 잘 못 쓰는 유아 5. 도입 조건(자리배치, 약속, 활동 소개) 6. 운율, 의태어, 의성어 등 탐색하는 발문 7. 동시 감상 지원하는 발문</p> <p>사전 활동: 산책 다녀온 유아들 “눈사람 있었어”, “추웠어”하고 이야기하고 관심 가짐.</p> <p>* 누리과정 요소 (자연탐구, 의사소통) - 겨울을 느끼고 즐긴다 (확실 X) -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 동시를 읽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확실X) -> 5세 30분 수업을, 5세 30명으로 잘못 봐서 세 그룹으로 나뉘었음...</p>
<p>도입</p>	<p>- 주의집중 (수박 동요) ♪사랑하는 토끼반이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모두 다함께 동시짓기 해봐요♪</p> <p>- 동기 유발 (사전 경험 회상) T: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를 다녀왔는 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미래 공원이었지요. 아 우리 인호는 공원에서 커다란 눈사람을 보았어요. 샤론이는 눈이 쌓여있는 것도 보았군요. T: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공원에 다녀온 뒤에 겨울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언어 영역에 있는 ‘겨울나라’ 동시도 좋아했지요. 그래서 우리 만의 동시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해주었어요. T: 친구들은 겨울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T: 아 봄이는 아빠랑 같이 먹은 붕어빵이 떠올라요! 따끈따끈하고 맛있었군요. 맞아요, 겨울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지요. T: 샤론이는 옛날 병아리 반때 눈썰매장에 간 게 생각이 났어요! 인호도 엄마랑 했던 눈싸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동작) 던져주었다고요~ 우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정말 많네요. 우리 친구들이 겨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네요. T: 아 00이는 토끼반 언어영역에 있는 <겨울나라> 동시에 떠올랐대요. 맞아요, 00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동시를 만들어보기로 했었죠.</p> <p>- 약속 T: 그러면 우리가 동시를 만들기 전에 어떤 약속을 지키면 좋을까요? 1)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요 2)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어요.</p> <p>- 활동 소개 그럼 오늘, 우리가 겨울을 느껴보면서 직접 동시를 만들어볼까요?</p>
<p>전개</p>	<p>- 겨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p>

T: 겨울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T: 너무 추워서 가져왔던 장갑과 목도리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군요.

T: 아, 지연이는 '겨울'하니까 흰색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흰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겨울마을 같다고 느꼈었군요. 그래요, 눈이 쌓이면 온통 하얗게 되지요.

T: 지연이의 생각을 듣고 또 떠오르는 색이 있나요?

아, 세인이는요, 빨간색이 떠올랐대요! 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세인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생일이라 그 날 선물을 많이 받는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빨간색이 떠올랐군요. 오 우리 예인이는 초록색이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초록색이라고요~ 샤론이는 또 떠오르는 색이 있어요! 아, 이번에는 트리 위에 놓인 전구들이 떠올랐어요? 전구는 무슨 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계속해서 색이 바뀌니까 무지색이라고 이야기해주네요. 겨울엔 많은 색이 있네요.

T: 그럼 우리가 겨울의 모습을 어떤 말로 표현해볼 수 있을까요?

봄이는 '핑핑'이라고 얘기해주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봄이는 우리 언어영역에 있는 「백설공주」 책에서 '흰 눈이 핑핑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라는 말이 떠올랐대요. 봄이가 아주 좋은 생각을 말해주었네요. 아, 인호는 '따끈따끈'이라고 하고 싶어요? 음~ 겨울에 먹는 붕어빵이 따끈따끈했어요~ 김이 나왔었군요. 아 샤론이는 할 말이 있어요? 아하, 눈이 쌓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음, 눈이 쌓여있는 모습은 어떤 말로 표현해볼 수 있을까요? 아, '소복소복'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요, 겨울에 눈에 쌓이면 발이 푹푹 들어가는 것처럼 눈이 소복, 소복, 소복, 소복하~ 쌓이죠. (목소리 작게, 손을 겹겹이 쌓아올리는 모션) 우리 친구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말해주었네요.

<동시 짓기 시범 등을 보였어야 할 것 같습니다.>

T: 그럼 우리가 동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아, 민석이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배려, 존중, 사랑 모듬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좋다고 이야기해주네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듬으로 동시를 만들어볼까요?

<여기서 모듬 시간 정했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바로 시작해버림.>

-전이

우리 배려모듬 친구들은 미술영역에서, 존중 모듬 친구들은 언어 영역, 사랑 모듬 친구들은 조작영역으로 가볼까요? 출발~

- 모듬 활동 시작 (이동하면서 상호작용)

<배려 모듬>

우와, 여기 모듬 친구들은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어떤 걸로 동시를 지을 건가요? 아, 우리 샤론이는 붕어빵으로 동시를 짓고 싶어요? 아하, 따끈따끈 붕어빵~이라고 적어줄거예요? 좋아요. 화이트보드에 만들어줄거군요. 마카로 붕어빵 그림도 그리고요~ 네? 선생님은

어떤 붕어빵을 좋아하나요? 음~ 선생님은 팔이 들어간 붕어빵이 좋아요! 아 샤론이도 그래요? 우와 그렇군요~! 그러면 팔이 있는 붕어빵을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아 우리 인호는 포슬포슬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동시가 완성되면 꼭 불러주세요.

<존중 모듬>

여기 친구들도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네요. A4용지에 써볼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꼬여서 4절이라고 해야 하는데 A4용지라고 말했어요.) 어떤 걸로 동시를 지을건가요? 아, 세인이는 겨울에 했던 놀이를 가지고 동시를 만들거예요? 아하~ 눈싸움을 적어보고 싶군요. 좋아요. 어라? 그런데 지연이 무슨 고민이 있나요?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작은 목소리로) 눈싸움이랑 눈썰매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 지 잘 모르겠어서 그랬군요. 오! 세인이가 도와줄 거예요? (중간 목소리로) 우와! 우리 세인이가 옆에서 적어주고 있네요. 어라? 그런데 지연이 발견한 것이 있다구요? 아~! 눈썰매의 ‘썰’과, 눈싸움의 ‘썰’이 똑같아요! 우와~ 지연이가 아주 재밌는 것을 찾아주었는데요?

<사랑 모듬은 시간상 패스>

- 시간 알리기 (급한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T: 자, 우리 토끼반, 시곱바늘이 4에 도착했어요. 다 못한 친구들은 열심히 이야기해주세요!
T: 토끼반~ 우리 이제 약속한 시간인 5에 도착했어요. 혹시 아직 시간이 필요한 모듬이 있나요? 아 모두 완성했군요.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시 이야기나누기 자리에 한 번 모여볼까요?

- 동시 소개하기

T: 친구들이 모두 모여주었네요. 오늘 만든 동시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아, 우리 배려모듬의 인호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인호 조심히 앞으로 나와볼까요?
T: 인호네 모듬은 화이트 보드에 만들어주었네요. 제목은 <붕어빵>이군요. 그럼 같이 감상해볼까요?

붕어빵
따끈따끈 붕어빵이 왔어요
한 입 먹으니 팔이 포슬포슬 있어요.

T: 우와, 정말 재밌는 동시를 지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 들어보니 어땠나요?
아 정말 재밌는 동시예요~ 아 그리고 지연이는 새로운 걸 찾았어요? 아~ 지연이가 여기에. 붕어빵이 ‘왔어요’, 포슬포슬 ‘있어요’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 같대요. 그러네요, 똑같이 반복되니까 더 재미지게 들리는군요. (운율 강조) 우리 지연이가 아주 새로운 걸 찾아주었어요. 어, 그런데 민석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우리가 저번시간에 배운 ‘붕어빵’ 노래를

	<p>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그렇게 들으면 더 신나게 동시를 읽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줄테니 한 번 더 감상해볼까요? (켜는 모션)</p> <p>자 이렇게 동시를 다 읽어보았네요. 우리 인호 고마워요 들어가서 앉아주세요.</p> <p><감상 발문 부족></p> <p><시간상 사랑 모듬이 완전히 생략된 형태></p>
<p>마무리</p>	<p>- 평가 (소감 나누기)</p> <p>T: 자 오늘 우리가 만든 동시를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다들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p> <p>T: 음, 인호는 겨울 동시를 만드니까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들 말처럼 정말 가을이 지나고~ 차가운 겨울이 우리 토끼반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p> <p>T: 아, 우리 지연이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우리 지연이가 동시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주어서 정말 놀라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맥락이 이상한데 조건을 강조하고 싶었어요)</p> <p>- 후속활동</p> <p>T: 그럼 다음시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놀이하면 재밌을 거 같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p> <p>T:아, 우리 민석이는요. 우리가 만든 동시로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디지털 영역에 있는 SUNO로 가사를 입력해서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요? 우와 그러면 우리 반만의 노래가 만들어지겠네요.</p> <p>샤론이는 눈이 오는 모습을 몸으로도 표현해보고 싶어요. 우와, 우리가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모습을 몸으로도 표현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춰볼 수도 있겠네요. 기대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조건: 전이 생략)</p>

2차 시험 준비 팁

1. 디지털 매체 활용하기 (gemini pro, 클로바 노트)

저는 2차 기간 중 생성형 ai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피드백해주는 것보단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대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잡아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경우에도 내 답변의 허점을 짚어주고, 더 좋은 표현이나 교육적 용어를 찾는 데 수월했습니다! 멘탈 관리에도 적합하니 관심있으신 선생님들은 스터디 메이트로서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방법>

0. 유아 임용 시험의 논점, 각 교육청의 시책 등을 입력하여 피드백 최적화 상태 만들기
1. 수업 실연/면접 연습하고 클로바 노트로 녹음하기
2. 텍스트 파일 변환하기
3. AI에게 [문제 조건 + 내 대본] 붙여넣고 피드백 요청하기

2. 스터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저는 시책 스터디, 번개 스터디, 동기들과의 면접 스터디,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한 합격자 선배님들과의 만남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책 스터디는 반드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책은 혼자 정리하기 쉽지 않고, 서로 설명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느꼈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중복을 응시하는 동기와 매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실제 면접처럼 상대방의 눈을 보며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 말하는 연습과 스터디에서 말하는 것은 체감 난이도가 매우 달랐고, 스터디를 통해 말의 구조와 속도, 시선 처리 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연은 AI를 활용하여 혼자 반복 연습했고, 번개 스터디도 두 차례 정도 진행하며 후반부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번개 스터디는 짧은 시간 안에 실전에 필요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연과 면접 모두 스터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스터디는 점검과 피드백의 역할이고, 실제 실력은 절대적인 개인 연습량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와 함께 혼자 말하기, 시연 녹화, 반복 연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면 및 건강관리 방법

① 스마트폰 중독

- 강제성 부여: '열품타' 어플 내 '초수 임용 합격방' 등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 서로 감시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물리적 차단: SNS 계정은 과감히 삭제하고, 'StayFree' 같은 잠금 어플을 활용하여 공부 시간 내에는 물리적으로 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② 아침잠이 많음 + 수면 장애

- 오전(기상): 기상 직후 진행하는 '오전 구술 스터디'를 잡아두어, 책임감 때문이라도 억지로 눈을 뜨고 오전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취침(수면):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자려 하기보다, '안전.건강' 파트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30분씩 보았습니다. 지루한 내용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면이 유도되었습니다.

③ 장기적 계획 세우기 어려워 함

- 도구의 혼용: 다이어리(전체 흐름)와 플래너(세부 실천)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 단계별 쪼개기
 1. 월간(숲): "이번 달엔 각론 1회독 끝내기"처럼 큰 목표를 잡기
 2. 주간(가지): 이를 4주로 나누어 "이번 주는 의사소통 영역 끝내기"로 배분하기
 3. 일간(나무): 자기 전 혹은 당일 아침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간략하게 할 일을 적기

④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 시작을 못함

- 카페 활용: 모르는 부분에서 멈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강사님 카페의 '질문 있어요 게시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가니 암기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⑤ 집중력 짧음

- 열품타 활용: 처음에는 4~5시간씩, '1시간 집중 + 휴식' 패턴을 반복하며, 열품타로 순공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어제보다 10분이라도 더 앉아있었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조금씩 공부 체력을 늘려나갔습니다.

⑥ 자기 확산 부족

- 편지 작성 :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제가 박수민 강사님께 보냈던 간절한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부하며 느낀 점

학부 수업과 임용 준비를 병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수능이나 고시처럼 장기 시험 준비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주변 선생님들이 모두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대한 학습량에 압도되어 포기 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오가 발표된 이후, 이 시험에 진지하게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우울감이나 두려움보다 '지금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실제로 정말 집중 해서 공부한 기간은 약 150일 정도였지만,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유아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 주변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신 박수민 강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쌓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용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익힌 내용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준비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은 앞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기록이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